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9호 [루게 제23141호] 주체99(2010)년 7월 8일 (목요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책임비서 백계룡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태종수동지,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동지, 리제일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강원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로길중동지를 비롯한 도와 발전소건설지휘부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서 맞이한 발전소건설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다.

원산군민발전소는 서해로 흐르는 강물을 동해로 돌려 락차고를 조성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가 큰 류역변경식수력발전소이다.

원산군민발전소가 완공되면 원산시를 비롯한 강원도의 전기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을뿐 아니라 이 지역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킬 수 있게 된다.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 정초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인 창조물의 하나인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강원도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규모가 큰 여러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에 기초하여 출력이 큰 원산군민발전소를 건설할 때에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 언제 쌓기와 물길굴뚝기를 비롯한 어렵고 방대한 공사에서 날에 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세우고 있다.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일념에 불타는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눈부신 투쟁에 의하여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자들의 치열한



돌격전으로 하여 하나의 대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이 비약하고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인양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는 연체건설장을 바라보시면서 강원도내 인민들이 자제의 힘으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우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격대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방대한 건설

공사를 자력으로 해내고있는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만년대계의 재부를 마련해가고있는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시기 강원도에서 대규모자연개조사업을 동반하는 어렵고 힘든 건설대상들인 안변청년2호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원산제염소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오늘 또다시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 달라붙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는것은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무궁무

진한 위대한 정신력의 빛나는 발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자들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여러건의 새 기술과 공법을 창안 도입하여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인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일본새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내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1년 남짓한 기간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경험은 대중의 힘과 지혜를 옹계

조직동원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우리 당사업방법의 진리성을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오늘 전국도처에서는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전변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비약하는 영웅적조선인민의 백절불굴의 위대한 정신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므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자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깨끗한 량심을 바쳐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경제적이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시면서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함께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때에 대한 당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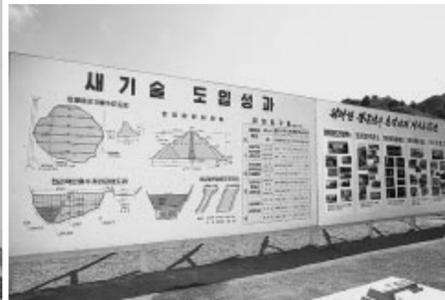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끝내자면 언제 쌓기와 물길굴뚝기에 력량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연관단위들에서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공사를 앞당겨 끝내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원산군민발전소의 전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산세험한 머나먼 자기들의 일터에 친히 찾아오시여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고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발전소완공의 보고를 올릴 영광의 그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한몸 다 바쳐갈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원 산 군 민 발 전 소 건 설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조선인민군 제 5 3 4 군부대산하 종합식료공장에 새로 꾸려진 장아찌생산공정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5 3 4 군부대산하 종합식료공장에 새로 꾸려진 장아찌생산공정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태종수동지, 제 1 부부장들인 주규창동지, 리재일동지,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 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펼쳐나신 공장의 종업원들은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군인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공장이 일떠선 후 지

난 5년간 매해 맡겨진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을뿐아니라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장아찌생산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갖가지 장아찌들을 생산공급함으로써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장에 새로 꾸려진 장아찌생산공정에서는 무우, 오이, 고추, 마늘을 비롯한 여러가지 남새들을 가지고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널리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한 전통음식의 하나인 갖가지 장아찌들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담하고 정결한 작업장들과 기대들마다에서 쉬임없이 포장되어 쏟아져나오는 먹음직스러운 여러가지 장아찌들을 보시고 공정을 잘 꾸리고 특색있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아찌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 만들어먹은 대중식품

으로서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손쉽게 생산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자는것이 당의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뜨거운 애병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생산을 부단히 늘임으로써 맛 좋고 영양가도 높으며 건강에도 좋은 여러가지 장아찌들과 식료품들을 군인들에게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5 면 으 로 계 속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원 산 군 민 발전 소 건설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종합식료공장에 새로 꾸려진 장아찌생산공정을 현지지도하시였다



4 면 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이 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들에게 질 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넉넉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공장은 군인들이 먹을 식료품을 생산하고

다루는것만큼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는 한편 공장의 위생문화적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특히 포장에서의 위생안전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된 이 공장을 만부하로 돌리자면 기술관리, 설비관리에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들에 생산된 식료품을 제때에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포장용기들을 원만히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군인들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에서 더 큰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종합식료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군인들에게 보다 풍족하고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에 북받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사들에게 안겨줄 질 좋은 식료품생산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태양의 역사는 선군조선의 부강번영속에 영원히 흐를것이다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에 태양의 역사가 장엄하게 흐른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빛나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동지!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한평생 인민이라는 고귀한 부름앞에 끝없이 성실하신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만이 꼭 차있었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이 세상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신 위대한 수령님,

인민을 그렇게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신분, 인민이 좋다면 다 좋고 인민의 요구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고 하시며 열과 정을 강리치 바치신 우리 수령님은 정녕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었다.

그렇다. 인민이라는 토양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면서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 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끝없는 로고의 한생, 무한한 헌신의 한생이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흐를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욱 못건디게 그리워하고있으며 그이의 한평생을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있는것 아니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훌륭한 인민으로 키워주시고 세상**

# 인민의 행복을 꽃피운 위대한 사랑의 한평생

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습다.》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의 미소를 삼가 우러르노라면 지금으로부터 18년전인 주제 81 (1992)년 4월 15일 탄생 80돐을 맞으시던 뜻깊은 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새겨진다.

들어키보면 나의 80평생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의 아들로서 인민을 위하여 바친 투쟁의 한생이라고 말할수 있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칠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섰으며 그 때로부터 오늘까지 언제나 나의 마음을 지배한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이었다. 항일혁명의 준엄한 나날에 풍란속하듯 사경에 처하였을 때에도 도란에 빠진 우리 민족을 생각하며 투지를 가다듬고 나서서 용기를 내었다. ...

진배를 울린 어버이수령님의 이 말씀, 바로 여기에 인민을 위해 바치신 전제시인의 한생이 얼마나 뜨겁게 집약되어있는가.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밤

뜰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 맞서 싸우신 20성상의 기나긴 세월, 해방후 세 조국건설과 3년간의 가말치절 한 조국해방전쟁, 전후 폐허를 가지고 자주, 자립, 자위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

그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는 만사합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자욱자욱이 끝없이 새겨져있다.

새 조국건설의 나날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우는 양덕군 언하리 구지골을 찾아 몸소 가시던 불길을 헤쳐가신 어버이수령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그 나날에는 적비행기가 떠돌고 한지않고 가려보기 힘든 캄캄한 야밤에 차를 타시고 위험천만한 림진강교를 건너 전선의 군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랑의 한몸에 안아주시고 아들이, 깊은 밤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신 남편없는 너니와 아이들, 가족을 학살당한 로인들을 두고 가시는것이 이년도 마음에 걸리시어 따뜻한 위로배우시며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야기, 전후 발발은 아이들을 보시고는 친히 새 신발을 사 신기도록 하시고 산골핀 인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어 머나먼 북편마을의 산간마을을 찾아 진 팔걸에 빠진 승용차를 몰고 미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이

야기... 강산과 황철, 비단섬, 평남관계 공사장, 온성, 안주, 청산별, 연백, 홍남을 비롯하여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러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결코걸으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그렇게 걸으신 길 다 이어놓으면 하늘끝에라도 닿으련만 언제나 인민을 위해 일하는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여기시며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걸음없이 이어가신 우리 수령님의 1분1초는 곧 인민을 위한 시간이었다.

어느해 겨울날 한 산간지대 협동농장을 찾으시어 농사일을 의논해주시고 점심시간이 퍼 지나서야 차에 오르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농장일군은 평양까지 가시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배식을 해주고 가시던 안된다고 결절히 아뢰었다.

그러자 시간이 늦어서 이제는 가야겠소, 늘 그렇게 사는데, 설심해마오, 이제 또 오겠소라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사나운 눈보라길을 헤쳐가실 때 마을사람들은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던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이 승고한 념을 삼파 투쟁의 본분으로 여기시였기에 때로는

군인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고 때로는 수수한 농촌집 호주가 되시어 인민들의 사소한 불편까지도 깊이 헤아리시고 그것을 당정책에 그대로 반영하여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시어 어버이수령님,

인민을 위한 좋은 의견은 아무리 많이 제기하여도 다 승인해주셨다고, 우리 일군들은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의견을 많이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런 의견을 제기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늘 말씀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오늘도 레사로운 생활속에 파묻혔다가도 그 갈피갈피에 숨어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느낄 때면 저도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품을 못건디게 그리워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을 훌륭한 인민으로 키워주시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시였건만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생애의 1994년의 나날을 우리 정병 잊을수 없다. 언젠가 그에게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젊은 사람도 그런

수술을 받으면 한달이나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런데 수령님께서서는 눈수술을 받으신지 며칠 안되어 한 해외동포를 만나시었고 이어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에 참가한 학생소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후에도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고는 물론결게 말씀하시였다.

인간이 겪을수 있는 온갖 고생과 피로움을 다 체험하시고 혁명의 길에 걸맞이는 시련과 난관을 한몸으로 헤치시며 인민의 행복을 아름답게 가꾸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선군시대에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일찌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인민을 위한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토록 아끼고 사랑하신 우리 인민들을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대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지새우신 밤 그 열매이며 헤쳐오신 길은 몇천몇만리던가.

역에서 멀리 떨어진 림산작업소와 바다바람 세찬 동해의 부두가, 석수술아지는 지하막강과 방직공들의 일터, 외진 산골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령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에 인민의 행복을 더욱 활짝 꽃피우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덧새겨진다.

그 로고속에 펼쳐진 비날삼천리과 남쪽의 비로폭포, 원홍방의 기름진 파수대평야, 모란봉기슭에 넘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노레소리...

누리는 행복이 커갈수록 우리 인민은 한평생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설레며 우리 수령님 그대로서인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령군길을 눈물결게 되새겨본다.

오직 인민을 위하여! 이 승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강행군의 신념을 더 역세게 조이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러므로 혁명의 폭풍을 파고히 헤쳐온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활활 산처럼 분출하는 사상감정은 과연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태양의 역사는 영원히 흐를것이며 이 땅위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일떠선다는 확신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승고한 유힬을 피우는 심장마다에 새기고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질풍같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황 명 희

## 기 록 영 화

### 《어버이수령님 일군들과 함께 계시여》 상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지 16쪽에 즈음하여 기록영화 《어버이수령님 일군들과 함께 계시여》가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상영되였다.

당과 군대, 국가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무역, 정전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인민군인들, 교육, 과학,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기록영화를 관람하였다.

영화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의 첫시기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일군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절음절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내용을 편집하고있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시였으며 그들을 현지지도의 길에 데리다나시고 회의들에도 부르시어 거중항 교시를 주시면서 인민의 충성으로 성실히 일해나가도록 충실히 보살펴주신 역사적화폭을 감동있게 보여주고있다.

우리 일군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과 사상도 뜻도 운명도 같이하는 혁명전사로 키우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온갖 실험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은 관람자들을 격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영화를 보면서 관람자들은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일군들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참된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체득하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승고한 뜻과 념을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서는 본분을 다해갈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바치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속성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 천만년 길이 빛날 불멸의 존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끝없이 설레이는 7월의 이 강산에 태양의 존함이 더욱 찬란히 빛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80년전 가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밝은 태양이 되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에 의하여 태양의 존함을 받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온 누리를 환히 밝힌 위대한 태양의 존함은 수령님께서 시대와 역사를 앞을 열어주시는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인류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대영광이시니.》**

장구한 인류사의 길피에는 위인들의 이름이 수많은 새겨져있다. 하지만 역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우리 수령님과 같이 태양의 존함으로 불려온 절세의 위인의 이름은 없다.

들어키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일성》이라는 존함을 처음으로 받으신것은 1920년대말이었다. 당시 10대의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단결의 영리한 중심으로 높이 우러르모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수령님께서 조선혁명

의 향도성이 되여주시것을 절절히 바라는 마음을 안고 그이를 《한별》 또는 한일자에 별칭자로 이루어진 《김일성》으로 존칭하였다. 그후 주제 19 (1930)년 가을 그들은 민족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실분은 우리 수령님밖에 없다 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그이의 존함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는 태양이라는 의미에서 날일자에 이놓으시게 이루어지는 《김일성》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20세기가 낳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리라는것을 엄숙히 신조한 력사적사변이었다.

그때로부터 우리 수령님께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헤치신 항일의 피어린 길은 그 열매였던가.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하신 후에도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걸고걸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집주인 개심입니까?》라고 하시며 평범한 가정의 출입문들을 두드리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소중히 새겨져있고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는 행복의 요람속을 인민을 재우시고 이 밤도 사랑의 길 노래 부르며 순간순간이라도 그이께서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던 인민의

충정의 마음이 대하마냥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과 그리움이 사무쳐올수록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태양의 존함을 더욱 빛내이며 태양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어져 가고있다.

태양의 나날 자기들의 비밀항쟁조국을 《김일성》로 명명하였던 우리 인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기관들과 기념비적건축물 등에 태양의 존함을 정중히 모시였으며 수령영생사업이 실현된 후에도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오시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김일성경거장, 김일성광장,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상》, 《김일성소년영예상》,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세계평화와 안전, 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수령님을 20세기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으로,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 진보적인류의 마음도 날이 갈수록 강렬해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존함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려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에 의하여 태양의 존함을 앞으로도 온 누리에 더욱 찬연히 빛날것이다. **박 명 철**

## || 승 고 한 품 모 , 고 귀 한 업 적 ||

### 승낙하지 않으신 제의

해방후 어느날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만경대에 계시는 삼촌네 외분을 평양시내로 모셔왔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그것은 평생 교도도 많이 하시고 오랜 세월 헤어져서시던분들이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택가까이에 모시고 자주 들보실수 있도록 헤드리고싶은 심정에서였다.

일군의 말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삼촌이야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농민인데 평양시내에 들어와 할 일이 무엇인가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것이 농민의 본분을 다하는것이다, 물론이나 삼촌도 손에서 농사일을 놓자고 하는 하지 않을것이니 만경대에서

그대로 농사를 짓게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어길수 없었던 일군들은 고향길에 집이라도 한채 지어드리기로 의하고 이 사업에 착수하였다.

일마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들의 생활이 아직 퍼지지 못했다는데 나의 일가친척이라고 해서 특권을 누리서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가져다놓은 자재를 건설장에 보내도록 엄하게 이시였다.

그날의 모습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정보다 나라와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바치시였다.

### 뒤로 미루신 휴식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투사들이 잠시나마 휴식할것을 말씀드리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마음편히 쉬어보라고 하시고 조국을 해방하신 후에는 새 조국건설을 위해 더욱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우리 함께 목숨희사하고 말씀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신 후에도 휴식을 뒤로 미루시고 사업에만 전심하시였다.

전후 복구건설이 한창이던 주제 42 (1953)년 8월 어느 날이었다. 남포지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 절절한 그리움 더해주는 이야기

지도에 표시된 어느 한 저수지를 가리키시며 떠날 준비를 하라고 이시였다.

일군의 안색은 대변에 밝아졌다. 사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편이은 현지지도와 협의회로 너무도 파로 하시였다.

그래서 전날 어버이수령님께 어느 호수까지 나가 낚시질이라도 하시면서 걸썩한 피로를 잠시라도 푸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으나 농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그이께서 뜻밖에도 먼저 저수지를 찾아가고 하시니 일군의 기쁨이 얼마나 북받쳐올랐을까.

하지만 그 감정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일군의 심정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낚시질을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일기에 보에 의하면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

이 물에 잠기게 되고 인민들이 큰 물피해를 입을수 있으므로 현지에 나가서 저수지수위와 제방상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음성에는 피곤이 꼭 실려 있었다.

일군은 그이를 경건히 우러르며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그를 한동안 따라 보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후에 좋은 날을 택해서 낚시질을 하러 가라고 하시면서 일군의 마음을 눈착혀 주시였다.

일군은 그이께서 약속하신 꼭 지켜주시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인민들의 가슴에 그리도 아프게 못박히게 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

#### 외국의 벗들이 높이 칭송

제 17차 세계청년학생총연 제 2차 국제준비회의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청년학생연대총행사들에 참가하였던 세 나라의 청년학생들이 이브라이마게이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서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다.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은 그이를 끝없이 그리워하고있다. 김일성주석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이시이다. 일본 메리 수카르노사우소 소장 파트나 사리 메비 수카르노는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점심시간을 맞게 되시였다. 겸소한 점심식사를 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려고 하시였다. 그이의 안방에는 피로가 어려있었다.

수행한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이 넘쳐되어 잠깐만이라도 쉬어가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타이르시듯 동무들이

### 80 평생의 주되는 총화

어느해 뜻깊은 4월 15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연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모두는 수령님을 우러르며 조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입막강을 건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활하며 바로 이것이 나의 80평생의 주되는 총화라고 말하고싶다고 선언하시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이 겪은 온갖 고생과 로고에 대해서는 묻어두고 언제나 인내내성과 운명을 같이하는데서 삶의 보람과 승리의 비결을 찾으시는데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내 심정을 모르지만, 통성하는 조국을 바라보는 기쁨보다 더 큰 휴식이 어디 있었소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나날 제대미를 해치고 수령님의 건강이 넘쳐되어 잠깐만이라도 쉬어가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타이르시듯 동무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하여 긍지높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김정일동지와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튼튼한 주체를 이루고있으며 이것 입막강을 건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활하며 바로 이것이 나의 80평생의 주되는 총화라고 말하고싶다고 선언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과 혁명, 인민앞에 이룩해놓으신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이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약속을 남기신 그 시각으로부터 얼마 안되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비보가 온 나라에 전해졌다. 사람도 산천도 뜻밖의 비보에 접하여 목놓아 흐느끼던 7월의 그 나날이 아마도 새삼스런것은 장마비만이 아니었다.

한평생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그토록 마음쓰신 민족의 어버이를 뜻밖에 잃은 천만자식들의 피눈물은 대하되여 흘렀다.

후에 좋은 날을 택해서 낚시질을 가라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약속이 어렸이는 저수지의 물도 새한 경평을 일으켰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분출시켜주는 이 일화는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고결한 혁명생애와 더불어 끝없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동 철

원회대표단 단장 장우철은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고 김일성주석에 대한 경도의 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고 말했다.

몽골 대외관계상 품모자민 잔단 사파르의 금수산기념궁전 방문록에 김일성각하께서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의 강화발전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호상 리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쌓으신 업적을 영원히 추억할것이라고 썼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파키스탄준비위원회 대표단 단장 니사르 아호메드 후로는 경애하는 김일성각하의 공적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이께서 김일성주석을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행운이었다. 중국 서안세계원예박람회조직위

【조선중앙통신】

